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물가는 지역경제 활동 및 정책수립에서 핵심지표

- 물가는 지역경제의 안정 여부를 진단하는 체온계 역할을 수행
- 한 지역의 물가가 갑자기 급등하면, 생산, 소비, 투자 등 지역경제의 안정성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
- 특히 물가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관심의 대상
- 지역 내 가계의 생활수준 및 상태를 가늠할 때는 물가수준을 반영한 소득 기준의 구매력 대소로 파악
- 특히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가계의 경우 지속적인 물가상승이나 높은 물가수준은 가계 부담으로 직결
- 그러나 물가의 중요성에 비해 서울의 물가구조 및 특성에 대한 연구 및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
- 물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지역별 물가구조 및 특성에 대한 연구는 부재
- 지역의 효율적인 물가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지역물가가 품목별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품목군이 물가불안을 초래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
- 국가차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물가지수가 작성·제공되고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는 일부 물가지수가 제외

1.2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물가구조의 특성분석을 통해 정형화된 특징(stylized facts)을 파악한 후 이에 기초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 첫째, 거시적 측면에서 서울시 물가의 주요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
- 지난 10년간 서울의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 등의 흐름과 물가 변동성 수준 등을 분석하고, 근원물가 및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새롭게 작성
- 둘째, 서울의 물가수준을 국내외 주요 도시와 비교 분석
- 서울의 물가수준을 뉴욕 등 주요 해외도시와 비교하고, 주요 생활품목 물가수준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와 비교 분석
- 셋째, 미시적 측면에서 서울의 주요 품목별 물가불안 구조를 분석
- 품목별 지출비중을 고려한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 변동성 수준 등을 고려해 구조적 물가불안 품목을 유형화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 서울시 물가 동향의 주요 특징

2.1 2011년 이후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이고, 근원물가와 격차 축소

- 2000년 이후 지난 13년간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평균 3.1% 상승
- 2000년대 초반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중반을 상회하는 등 높았으나, 2011년 이후 2% 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
- 2000년 이후 서울의 근원물가는 지난 13년간 평균 2.8% 상승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회
- 서울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2000년대 초반에는 3%대에서 2011년 이후에는 2% 초반대로, 특히 2013년 1~7월에는 1% 중반대로 하락
- 근원물가는 전반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지만, 2013년 들어 그 격차가 축소
- 2000년 이후 지난 13년간 서울의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적으로 약 0.3%p 하회
-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 간 격차가 과거에 비해 축소된 것은 소비지출 구조 변화와 더불어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의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 감소가 주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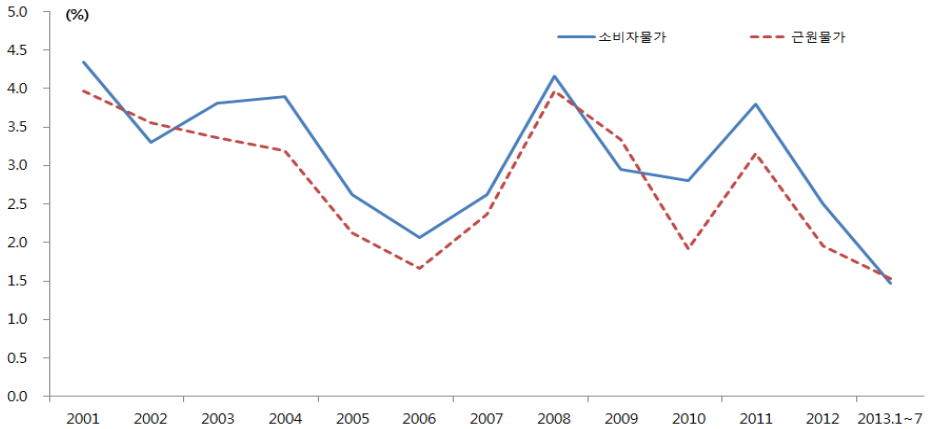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2.2 최근 이례적으로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회

- 2013년 1~7월 중 서울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0.9%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p 하회
- 2000년대 중반이후 생활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
- 2011년 이후 서울의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더 하향 안정화된 것은 무상보육·무상급식 확대실시 등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료 및 급식비 하락, 일부 농축산품의 가격안정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
- 2011~2013년 중 생활물가 안정은 보육시설이용료, 유치원납입금, 학교급식비 등 3대 품목이 평균 -48.4% 기여
- 이밖에 돼지고기, 참외, 이동전화료, 스마트폰 이용료, 조제약, 고등학교 납입금 등이 2011~2013년 중 생활물가 안정을 주도
- 특히 상위 3대 품목은 모두 무상보육 관련 항목으로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가 생활물가 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

표 1 2011~2013년 중 서울시 생활물가 하락을 주도한 주요 품목군

(단위 : %)

구분	가중치 비중	주요 품목별 가격 상승률			생활물가에 대한 기여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1~2013년	2013년
생활물가지수	100.0	3.9	1.9	0.9	100.0	100.0
보육시설이용료	1.32	3.0	-36.2	-32.1	-23.6	-46.9
납입금(유치원)	1.69	2.2	-7.3	-17.9	-12.9	-33.2
학교급식비	0.94	-22.3	-34.2	-13.1	-11.9	-13.6
돼지고기	1.32	31.2	-13.9	-15.7	-7.3	-22.9
이동전화료	4.71	-3.0	-4.8	0.0	-5.2	0.0
조제약	1.03	-0.9	-10.4	-7.5	-4.8	-8.6
납입금(사립대학교)	3.45	2.1	-1.8	-1.2	-2.0	-4.6
참외	0.21	10.4	-8.9	-21.6	-1.8	-5.0
납입금(고등학교)	1.38	-10.4	-2.1	0.1	-1.7	0.1
스마트폰 이용료	2.89	-0.5	-1.3	0.0	-0.8	0.0

주 : 1. 2013년은 1~7월 수치이며, 2011~2013년의 각 기여율은 각 연도 기여율의 평균 수치
 2. 특정 품목의 생활물가에 대한 기여율은 각 생활물가의 구성 품목이 전체 생활물가 증감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모든 구성 품목의 기여율 합은 100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 서울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최근 들어 낮아지고 있지만, 16개·시도와 비교하면 높은 편
- 2013년 1~7월 중 전월세를 제외한 서울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대구, 울산에 이어 3위이고, 전월세를 포함하면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음

2.3 서울의 물가 변동성은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서울의 소비자물가 변동성은 2000~2005년 0.73에서 2006~2010년 0.82, 2011년 이후 0.99로 확대
- 물가의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감시 미흡, 시장의 낮은 물가충격 흡수력 등을 의미
- 서울의 소비자물가 변동성을 전국과 비교하면 추이는 유사하지만, 그 수준은 전국보다 다소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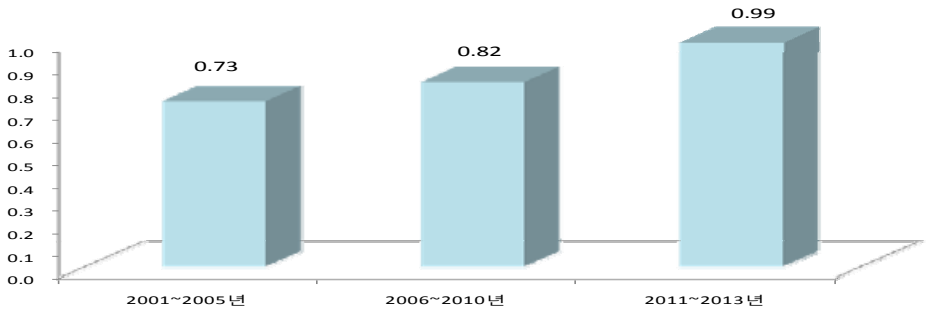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 추이

주 : 2013년은 1/4~2/4분기 수치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2.4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수준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편

-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산출한 결과, 저소득층의 물가지수 수준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
- 2013년 1~7월 중 저소득층 물가지수는 106.4로 중산층(106.0) 및 고소득층(105.7) 물가지수 수준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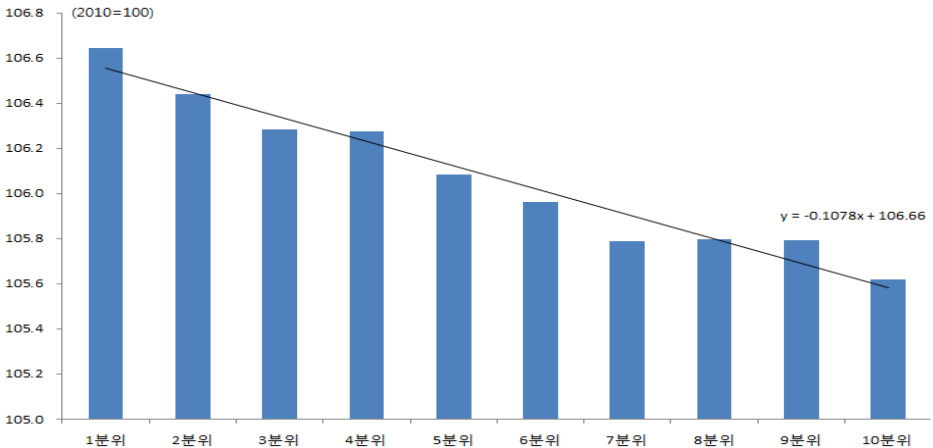


그림 3 2013년 1~7월 중 서울시 소득분위별 물가지수

자료 : 가계소득동향, 2005, 2008,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05~2013, 통계청

- 2005년 이후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기간별로 보아도 유사
- 2005~2009년 중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평균을 보면, 저소득층 물가지수가 90.6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중산층(90.4), 고소득층(90.3) 등의 순
-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은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아,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시사
- 2010~2013년 중 서울의 저소득층 물가상승률은 2.40%인 반면, 중산층과 고소득층 물가상승률은 각각 2.29%, 2.21%
- 특히 소득 최하위 계층인 소득 1분위의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고, 최상위 계층인 소득 10분위의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저생계비 산정 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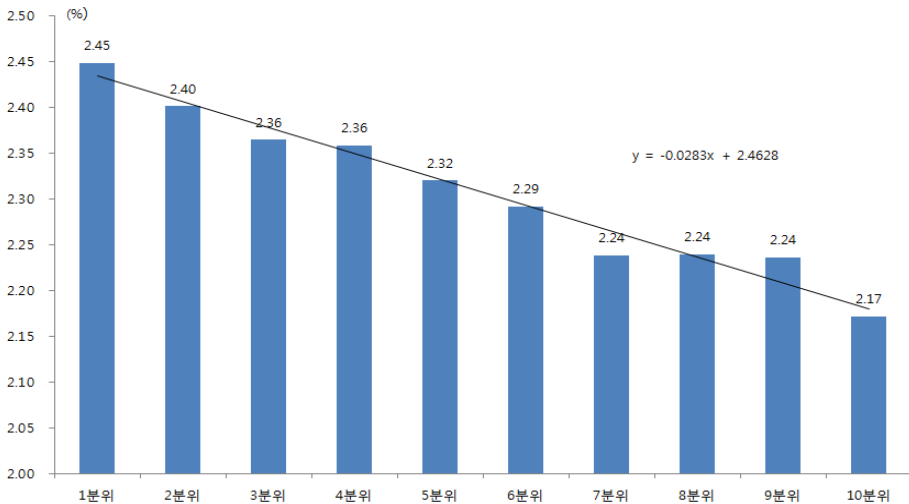


그림 4 2010~2013년 중 서울시 소득분위별 평균 물가상승률

주 : 2013년은 1~7월 기준

자료 : 가계소득동향, 2005, 2008,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05~2013, 통계청

-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인은 소비지출패턴 차이 (가중치 차이)와 해당 품목의 가격변동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
- 저소득층은 주로 식료품, 주거·광열·수도 등에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소비지출비중이 큰데, 이들 품목의 가격상승이 저소득층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유발
-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지출비중이 큰 품목들의 물가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참 고〉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작성방법 및 자료집합

- 소비자를 소득기준으로 계층별로 구분
- 소득계층은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10%씩 분위별로 할당하여 소득10분위를 구분
- $\text{균등화소득} = \frac{\text{가구소득}}{\sqrt{\text{가구원수}}}$
- 10분위 소득계층은 다시 저소득층(1~3분위), 중산층(4~8분위), 고소득층(9~10분위)으로 그룹화
- 소득계층별·소비품목별 소비지출비중을 구한 후, 이를 활용해 각 소비계층의 품목별 가중치를 산출
- 소득계층별 품목별 가중치와 품목별 소비자물가를 활용해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작성
- 2005년, 2010년 각 기준시점에 따라 구성품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005년 기준연도로 산출된 지수를 접속계수를 활용해 변환
- 변환예 : $I_t^{10} = I_t^{05} \cdot C^{05}$
여기서, $C^{05} = \frac{I_{10}^{10}}{I_{10}^{05}}$ (2005년 기준지수의 2010년 기준지수 접속계수),
 I_t^{05} = 2005년 기준 t년도 지수, I_t^{10} = 2010년 기준 t년도 지수

3 국내외 주요도시 물가수준 비교

3.1 2012년 서울의 물가수준은 세계 72개 도시 중 37위

- UBS에서 조사·발표한 2012년 뉴욕 물가 기준(100)으로 본 서울 물가는 뉴욕의 67% 내외 수준
- 2012년 집세를 제외한 서울 물가는 67.8, 집세를 포함한 서울 물가는 66.3
- 2012년 세계 72개 도시의 물가 순위는 오슬로, 취리히, 도쿄, 제네바 등의 순이며 서울은 72개 도시 중 중위권인 37위(집세 미포함 기준)
- 서울은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 차량과 가전 등 내구재 가격이 비싸고, 여성의류, 남성의류, 버스, 택시, 기차 등의 가격이 비싼 편
- 품목별 뉴욕 물가를 100으로 할 때, 서울의 차량세금은 523.0으로 뉴욕 물가를 5배 웃돌고, 차량유류비(133.3), 차량가격(126.8) 등도 뉴욕 물가수준을 상회
- 품목별 뉴욕 물가를 100으로 할 때, 서울의 기차 요금은 20.3으로 뉴욕의 20% 수준이고, 남성의류(30.6), 버스(37.5), 여성의류(38.6), 택시(40.0) 등도 뉴욕 물가수준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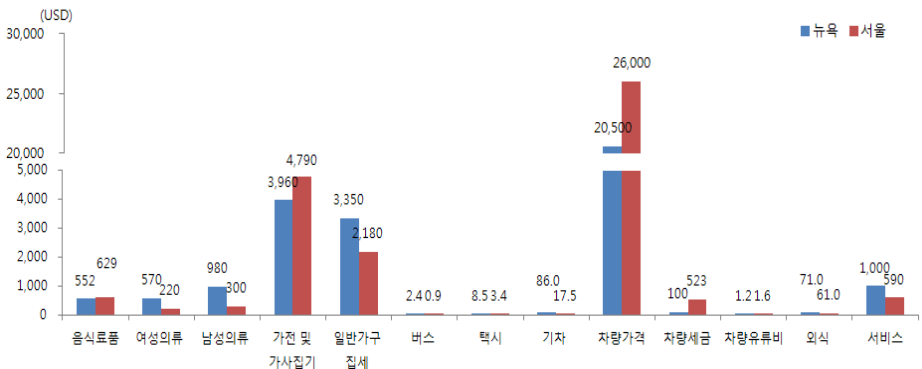


그림 5 2012년 뉴욕과 서울의 주요 품목별 가격수준 비교

자료 : Prices and Earnings, 2012, UBS

- 서울은 높은 도시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수준이 낮은 편
- 도시경쟁력과 물가수준의 관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도시경쟁력이 높을수록 물가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
- 2012년 모리재단의 상위 14개 도시 경쟁력과 UBS 물가수준의 상관계를 분석한 결과, 0.52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
- 이는 도시경쟁력이 높을수록 도시 내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수요확대로 연결되어 물가압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그러나 2012년 모리재단의 도시경쟁력 6위인 서울의 물가수준은 37위로 도시경쟁력 상위 10위권 도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
- 이는 서울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공공요금, 서비스가격 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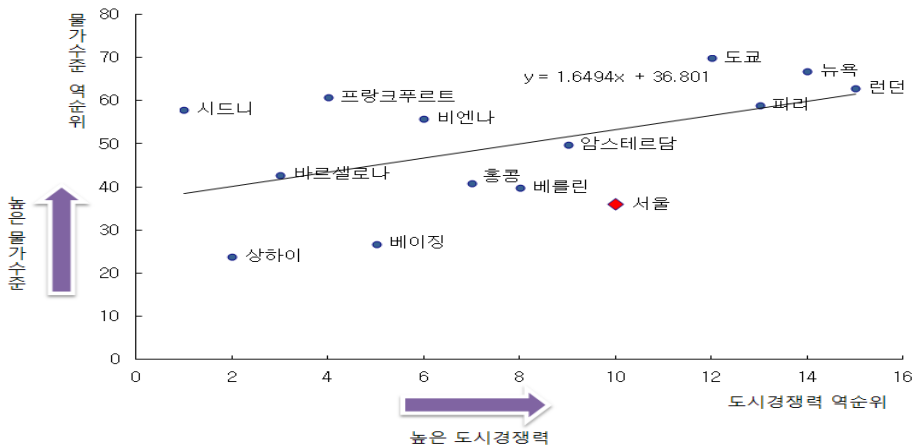


그림 6 모리재단의 도시경쟁력 순위와 UBS의 물가수준 비교

주 : 도시경쟁력 순위와 물가수준 순위는 모두 역순위로 순위가 높을수록 도시경쟁력 및 물가수준이 높음
 자료 :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비교분석, 2012, 서울연구원; Prices and Earnings, 2012, UBS

3.2 서울의 59개 생활품목 물가수준은 2010년 이후 5개 도시 중 1위

- 서울의 59개 생활품목 물가는 2010년 이후 5대 도시 중 가장 높은 편

- 품목별로는 곡물류, 육란류, 수산물, 연료 등의 서울 물가가 높은 편
- o 한편, 삼푸, 치약 등 공산품으로 구성된 일용품과 배추 등의 채소·양념류 가격은 서울이 5개 도시 중 가장 낮음
- 이는 공산품의 주요 유통망 중 하나인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성장세가 특히 높은 서울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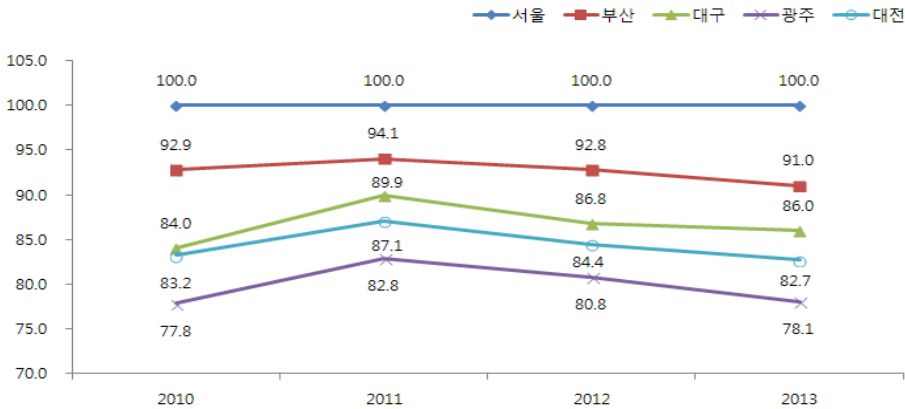


그림 7 국내 주요 5개 도시의 생활품목 물가수준

주 : 2013년 수치는 1~7월 평균 수치

자료 : 한국물가협회, 생활물가동향 및 시세표, 해당 연도

4 물가불안 품목의 유형화

4.1 3단계를 거쳐 서울의 물가불안 품목을 규명

- o 서울의 물가불안 품목 규명은 다음과 같이 3단계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서 유형화를 시도
- 1단계 : 2011~2013년 중 개별 품목의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평균을 기준으로 유형화
- 2단계 : 2011~2013년 중 개별 품목의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유형화

- 3단계 : 2011~2013년 중 개별 품목의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와 가격 변동성의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유형화

표 2 물가불안 품목의 유형화 방식 요약

	1단계 :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기준 유형화	2단계 :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 기준 유형화	3단계 : 물가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 유형화
기준	▷ 2010년 소비지출비중 ▷ 2011~2013년 중 평균 물가상승률	▷ 2010년 소비지출비중 ▷ 2011년~2013년 중 가격변동성이 평균 수준	▷ 2011~2013년 중 물가상승 기여도 평균 ▷ 2011년~ 2013년 중 가격변동성이 평균 수준
목적	▷ 가게 내 소비지출 비중이 크면서 물가상승률도 높은 품목들을 규명	▷ 가게 내 소비지출 비중이 크면서 물가불안정을 유발하거나 물가수준이 높은 품목들을 규명	▷ 전체 물가에 대한 기여도가 높으면서 고물가 및 물가불안정을 유발하는 품목들을 규명
중점 모니터링 품목 후보군	▷ 소비지출비중이 평균 수준 이상이고 물가상승률도 평균 수준 이상인 품목	▷ 소비지출비중이 평균 수준 이상이고 가격변동성도 큰 품목	▷ 물가상승 기여도가 높고 가격변동성도 큰 품목

- 3가지 유형화 방식의 결과를 보면,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특징도 보이고 있고, 종합적으로 볼 때 물가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 유형화 가 물가불안 품목 규명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
- 물가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은 개념적 측면에서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기준,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 기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 물가 기여도는 개념적으로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의 곱으로 표현되므로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기준을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 소비비중과 물가변동성 기준은 소비비중을 포함하고 있으나, 물가변동성이 낮더라도 물가수준이 높을 수 있으므로 분석기준으로 다소의 약점을 보유
- 또한 분석결과를 보면, 물가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으로 선별된 중점 모니터링 후보군이 21개로 가장 많고, 특히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선별된 후보군을 모두 포함

- 따라서 물가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으로 선별된 후보군 중에서 서울시 정책을 통해 물가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품목을 서울시 물가불안 요인 품목으로 선별하고 주요 품목군에 대한 진단을 실시
- 주요 품목군은 주택임차료 등 ‘주거비’, 학원 및 보습교육 등의 ‘사교육비’, 빵 및 곡물, 과일, 채소 및 야채 등의 ‘식료품’

표 3 소분류 품목의 모니터링 후보 품목군의 유형화 과정

분류 기준	모니터링 품목 후보군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9개 품목)	주택임차료, 학원 및 보습교육,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가스, 빵 및 곡물, 전기, 채소 및 해조, 과일 도로 여객수송
↓	↓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 (19개 품목)	음식서비스, 전화 및 팩스 서비스,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고등교육, 가스, 육류, 빵 및 곡물, 의약품, 채소 및 해조, 여자의류, 과일, 도로 여객수송, 기타서비스, 주택임차료, 학원 및 보습교육, 의료서비스, 전기, 운송장비, 개인용 전기용품 및 미용용품
↓	↓
물가기여도와 가격변동성 (21개 품목)	음식서비스, 가스,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빵 및 곡물, 과일, 기타 식료품, 채소 및 해조,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캐주얼의류, 철도 여객수송, 도로 여객수송, 단체여행, 상하수도료, 과자·빙과류 및 당류, 가구 내 고용 및 가사 서비스, 여자의류, 주택임차료, 학원 및 보습교육, 이미용 및 미용시설, 전기, 남자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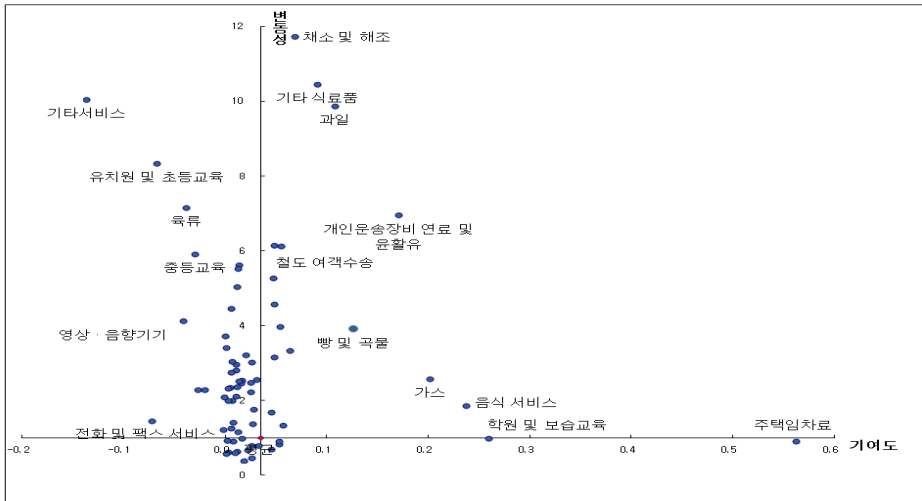


그림 8 비목별 기여도와 가격변동성에 의한 품목 분류

4.2.1 주택임차료 : 전세가격 상승과 공동주택관리비 상승이 주요인

- 서울의 주택임차료 물가불안은 전세의 높은 지출비중과 가격상승 등이 주요인
 - 서울 물가에서 전세 가중치는 107.9로 주택임차료 가중치의 72.8%
 - 전세와 월세의 물가상승률은 모두 평균 수준을 상회하지만, 특히 전세의 물가상승률이 2011~2013년 중 4.2%로 높은 편(월세는 2.8%)
 -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은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 지속에 대한 기대심리 확대에 임대수요가 확대된 것이 주요인
- 서울의 기타 주거관리 서비스의 물가불안은 공동주택관리비의 높은 물가상승이 주요인
 - 기타 주거관리 서비스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비, 쓰레기 봉투료, 정화조 청소료로 구성되는데, 이들 품목 중 공동주택관리비 비중이 가장 크고 물가상승률과 가격변동성도 모두 높은 실정
 - 2010~2013년 중 공동주택관리비의 물가상승률은 5.0%
 - 특히 공동주택관리비는 공동주택별로 관리품목 및 비용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일괄적인 가격관리 및 안정화가 어려운 실정

4.3 사교육비 :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보습학원비가 주요인

- 서울의 사교육비 지출비중의 48.3%는 중·고등학생 학원비이며, 이들 품목의 물가상승률과 가격변동성이 높은 편
- 2010~2013년 중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원비 품목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4.5%, 7.6%
- 중고등학생 학원비가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서울이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사교육 참여율이 높기 때문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1만 2천원으로 16개 시·도 중 최고 수준이고, 사교육 참여율도 16개 시·도 중 대구에 이어 2위 수준
- 2012년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 대구 75.4%, 서울 73.5%, 대전 73.4% 등의 순
- 특히 예체능, 취미 등 교양사교육(30.9%)보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비중(58.6%)이 월등히 높은 실정

4.4 식료품 : 빵 및 곡물, 과일, 채소 및 해조 품목 등이 물가불안 주도

- 빵 및 곡물, 과일, 채소 및 해조 품목은 소비지출비중,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 가격변동성 모두 평균 수준 이상인데, 이들을 개별 품목별로 보면, 물가불안을 주도하는 품목이 매우 다양
- 빵 및 곡물은 주로 쌀, 콩, 라면, 두부, 빵 등이 물가불안을 주도
- 쌀은 빵 및 곡물에서 소비지출비중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2011~2013년 중 8.8% 상승
- 과일은 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귤, 수박, 바나나 등이 물가불안을 주도
- 과일 중에서 소비지출비중이 가장 큰 사과의 물가는 2011~2013년 중 9.1% 상승
- 채소 및 해조류는 배추, 당근, 고구마, 양파, 미역 등이 물가불안 주도
- 채소 및 해조류 중 소비지출비중이 가장 큰 배추의 물가는 2011~2013년 중 11.7% 상승
- 식료품 가격불안의 주요인은 낮은 곡물 자급률과 유통구조 왜곡
- 한국은 곡물 자급률이 낮아 곡물가격 상승 시 식료품 가격상승을 유발
- 2011년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3.1%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일본과 더불어 매우 낮은 편
-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주요 식품 자급률은 대부분 100%를 상회

- 일본은 곡물 자급률이 낮지만, 1970년대부터 해외곡물 생산기지와 유통시설에 투자함으로써 가격안정을 실현
- 또한 일부 곡물 수입가격과 국내 곡물가공품가격 간에 비대칭성이 존재해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직결되지만, 국제 곡물가격 하락은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특히 식료가공품의 원재료이면서 주요 식재료인 농산물은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치면서 유통마진이 매우 높아지고, 이는 최종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
- 주식인 쌀의 유통마진은 약 21%이지만, 사과, 귤 등 과일류의 유통마진은 42~52% 수준이고, 특히 저장성이 좋지 못한 채소 및 해조 품목중 대파는 유통경로에 따라 약 55~62%가 유통마진인 것으로 분석

표 4 주요 농산물의 유통마진

(단위 : %)

	쌀		사과		귤		대파	
	A경로	B경로	A경로	B경로	A경로	B경로	A경로	B경로
농가수취율	79.1	78.5	57.3	55.3	48.0	48.5	37.6	44.7
유통마진	21.0	21.6	42.7	44.7	52.0	51.6	62.4	55.3

주 : 1. A경로는 대형유통업체를 경유하지 않는 전통적인 유통방식(생산자→도매상→소매상→소비자), B경로는 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경유하는 방식(생산자→산지유통인→도매상→소매상→소비자 혹은 생산자→대형유통→대형마트→소비자)
2. 2010~2011년 지역 구분 없이 평균 수치를 활용

5 향후 정책방향

5.1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관리

- 서울의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물가불안을 초래하는 품목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품목별로 소비지출비중, 물가상승률, 가격변동성 등을 활용해 구조적 물가불안 품목을 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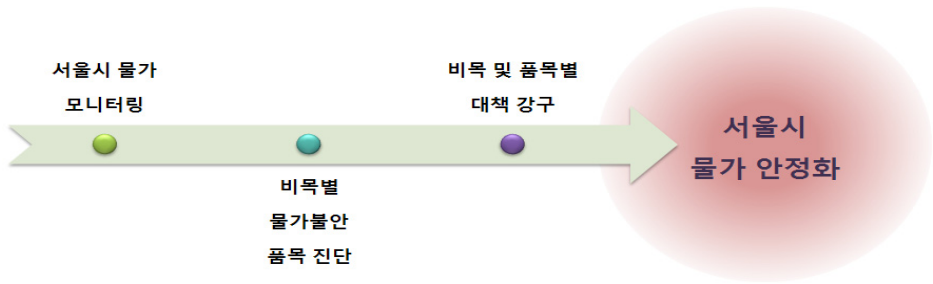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의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관리

- 서울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와 가격변동성을 기준으로 물가불안 품목을 유형화한 결과, 소분류 기준으로는 21개 품목이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으로 선별
- 소분류 기준 21개 품목은 표 3의 음식서비스, 가스,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빵 및 곡물, 과일, 채소 및 해조, 주택임차료, 학원 및 보습교육 등
- 이를 481개 세분류 품목 대상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와 가격변동성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하면, 총 116개의 품목이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으로 선별
- 116개 품목은 표 5의 쌀, 콩, 라면, 사과, 배추, 전세, 월세, 설비수리비, 상하수도료, 공동주택관리비, 전기료, 지역난방비, 가사도우미료, 한방약, 외래진료비, 학원비, 도시가스, 휘발유 등

표 5 서울의 세분류 기준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

소분류 품목	세분류 품목	소분류 품목	세분류 품목
빵 및 곡물	쌀, 콩, 라면, 두부, 빵	의료용품 및 치료기기	위생대
어류 및 수산	생선통조림	의료서비스	외래진료비
우유, 치즈 및 계란	우유, 발효유, 달걀	기타 의료서비스	치과진료비
과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귤, 수박, 바나나	병원 서비스	입원진료비
채소 및 해조	배추, 당근, 고구마, 양파, 미역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휘발유, 경유, LPG(자동차용)
과자, 빙과류 및 당류	아이스크림, 비스킷, 스낵과자	개인운송장비 관련 기타 서비스	승용차임차료
기타 식료품	고춧가루, 간장, 고추장, 김치, 밑반찬, 즉석식품	철도 여객수송	전철료
커피, 차 및 코코아	커피	도로 여객수송	시내버스료
생수, 청량음료, 과일주스 및 채소주스	과일주스, 탄산음료	항공 및 수상여객운송	국제항공료
담배	담배(수입)	기타 여객운송	이삿짐운송료
남자의류	남자정장, 남자외투, 남자내의	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골프장이용료
여자의류	여자정장, 여자외투, 원피스	문화 서비스	사진촬영료
캐주얼의류	점퍼, 티셔츠, 청바지, 운동복,	서적	서적
아동복·유아복	아동복	단체여행	단체여행비(국내), 단체여행비(해외)
신발	남자구두, 여자구두	학원 및 보습교육	학원비(초등학생), 학원비(중학생), 학원비(고등학생), 음악학원비, 미술학원비, 운동학원비, 가정학습지
주택임차료	전세, 월세	성인학원 및 기타교육	취업학원비, 외국어학원비
주거시설 유지·보수	설비수리비	음식 서비스	김치찌개백반, 된장찌개백반, 비빔밥, 설령탕, 해물찜, 해장국, 쇠고기(외식),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오리고기(외식), 냉면, 칼국수, 생선회(외식), 자장면, 돈가스, 피자, 커피(외식), 소주(외식), 맥주(외식), 구내식당식사비
상하수도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개인용 전기용품 및 미용용품	로션, 선크림, 영양크림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공동주택관리비	기타 개인용품	장신구, 가방
전기	전기료		
가스	도시가스		
기타연료 및 에너지	지역난방비		
가정용 섬유제품	침구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부엌용 용구		
가구내 고용 및 가사 서비스	가사도우미료		
의약품	한방약		

5.2.1 주거비 부담 완화

- 전세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물량 확대 및 세입자 권익보호 등을 통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 서울의 가구특성을 고려해 소형주택 등 시장수요 반영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
-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질적 향상을 통해 주택시장에서 수요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
- 공동주택관리비의 비합리적인 인상을 억제하고 관리비 절감을 유도
-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교, 회계자료 등의 서비스제공을 더욱 강화
-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 회계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한 방안
- 또한 철저한 시설관리 등의 홍보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비 절감을 유도
- 정기적인 급수관 청소 등으로 공동수도료 절감, 실외기의 먼지청소 등을 통한 공동전기료 절감 등

5.2.2 사교육비 안정화

-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공교육의 질적 향상
- 학교 수업외의 보습학원비가 주요 물가 상승요인이므로 학교보충교육의 질적 강화가 요구
- 방과후학교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을 내실화
- ‘수준별 방과후 학습’, ‘EBS 자율학습기기’ 등의 지원과 저소득층 초·중고생용 방과후 돌봄을 강화
- 특히 현재 성동구 등 3개 자치구에서 자치구 사업으로 시행 중인 ‘지역창의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확대

- 또한, 현재 돌봄, 보육, 교육 분야에서 활동 중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사교육시장을 다양화
- 교육부형 예비 사회적기업인 사단법인 ‘서경뮤직스쿨’은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학교 음악교육 프로그램 진행

5.3 농산물 가격관리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 일반 소비자들의 도·농 간 농수산물 직거래 유통경로 확대를 위해 농수산물 등 먹거리 관련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홍보 및 지원을 통해 도·농간 직거래 운동을 장려
- 현재 ‘한살림’, ‘쌈지 농부로부터’와 같은 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유통망을 통해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가 일부 이뤄지고 있음
- 서울은 대형 도매시장을 이용한 유통망 관리 및 수급상황 실시간 예보, 가격공시 등을 통해 도매시세가 어느 정도 관리 가능
- 서울은 가락시장, 양곡시장 등 전국유통망을 가진 대형 도매시장이 입지하여 각 산지의 수급물량에 맞춘 도소매가가 형성되는 시장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
- 서울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 등을 통해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을 유지
- 지속적인 유통정보 제공을 통한 유통품목의 경매정보, 등급별 가격, 거래가격 등 시장 정보 제공
-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서울시 등이 산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미리 선구매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소비비중이 높은 필수 농수산물의 공급 및 수요 급증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대안
- 산지직거래 활성화, 온라인 거래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모색

- 산지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고정 장소를 마련해 매월 혹은 계절별로 직거래 참여 희망 산지 및 참여 희망 업체를 선별한 후 서울시민과 산지 간 농수산물 직거래 창구를 확대 구축
- 서울시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서울시의 열린 공간을 통해 서울시 주도의 임시 직거래 장터를 운영
- 그 외에도 서울시의 서울광장 등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산지관련 생산자 및 판매자 단체 주도의 장터가 한시적으로 열림
-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유통망 및 이용점포 확대 등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망 개선과 더불어 영세소매업의 판매가격 안정화를 도모
- 2013년 2월 양재동에 개장된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는 냉장·냉동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점포 확대 및 시설 활용도를 제고할 경우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물류비 절감 기대